

## IMA 크리틱스 소개

IMA 크리틱스는 일민미술관의 시각문화 비평 연구 프로젝트다. 비평, 글쓰기, 편집 전문가를 초빙하여 비평 쓰기에 대한 원론을 되짚고 담론이 활용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익히며, 유의미한 비평의 결과물을 생산한다. 2024년에는 3인의 IMA 크리틱스 연구자 김윤진, 남수빈, 장예란이 활동한다.

## 장예란

장예란은 미술이 상업화되는 제도권에서 작품이 단순한 재물이 아닌 가치 있는 개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전시와 글을 통해 독려한다. 시장으로 진입한 현대미술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대중에게 어렵지 않게 가 닿을 수 있도록 중개한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회화와 판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총체예술의 개념을 통해 본 파블로 피카소의 3차원 작업」(2017)으로 미술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안공간과 상업공간을 거쳐 현재 갤러리에서 인하우스 전시 총괄 및 작가 리에종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백현진의 심플렉스: 단순하고 복잡한, 그리고

그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해 거의 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산다. 'bekhyunjin\_offical', 'bekhyunjin\_00', 'bekhyunjin\_text', 'bekhyunjin\_visualthing' 따위로 분류한 SNS 피드에는 위대한 결말보다는 시시껄렁한 과정들을 매일없이 기록한다. 어느 날은 방구석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어떤 날에는 드라마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신을, 다른 날은 그리는 중인 작업의 전경을, 또 다른 날에는 직접 만든 건강한 집밥을.... 백현진의 수없는 과정과 활동에는 그것을 관통하는 어렵풋한 운율이 흐른다.

## 이미지의 리듬

2024년 4월 9일, 백현진은 '붓질 중(In progress)'이라는 첨언과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패턴이 아닌 패턴 같은 패턴>(2024)의 일부를 처음 업로드했다. 희미하게 보이는 회색 마름모꼴의 패턴 위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간간이 노란색의 빗금이 쏟아지는 이 회화 연작을 그는 4월부터 8월까지, 많게는 하루에 두 번씩, 적게는 한달에 세 번 부분적으로 계정에 올렸다. 그렇게 완성된 <패턴이 아닌 패턴 같은 패턴> 36점은 <당신의 배경>(2024)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개인전 《담담함안담담함 라운지》(일민미술관, 2024.8.30.—11.17.)에 출품되었다.

미술관 2층의 가장 긴 벽면을 <당신의 배경>이 빼곡히 메운다. 213×150cm 크기의 장지 작업 18점과 87×150cm의 장지 작업 18점으로 구성된 이 대형 회화에서 각 유닛(unit)은 너비와 높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풀이 끝까지 발리지

얇아 모서리가 울퉁불퉁하게 들린 벽지처럼 엉성하게 벽에 붙어 있다. 작업의 우측 벽은 회화의 유닛들과 유사한 크기로 분할된 거울[〈9개의 거울과 형광등들〉(2024)]로 가득 차 있고, 때문에 〈당신의 배경〉은 오른쪽 복도 끝까지 두 배로 확장된 듯하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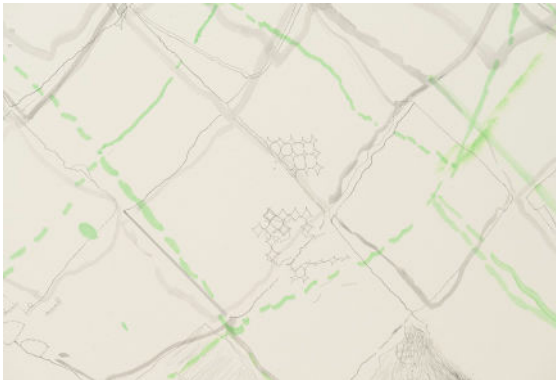


도판 1. 《담담함안담담함 라운지》 전시 전경,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사진 촬영: 스튜디오 오실로스코프

반복과 대칭은 리듬감을 만들고, 보는 이에게 심리적인 균형과 쾌감을 주는 기제가 된다. 백현진은 이 평면 작업을 설치할 때 해체하고 결합할 수 있는 유닛들, 즉 〈패턴이 아닌 패턴 같은 패턴〉을 상하좌우로 반복하고 거울로 대칭을 만들어 리듬감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 리듬은 철저하게 계산된 패턴이 아니라 그려지는대로 무작위하게 그린, 말 그대로 ‘패턴이 아닌 패턴 같은 패턴’에 더 기반한다. 그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무작정 붓을 들고 거의 아무 색이나 잡히는 대로 집어 들고 그림을 시작”하고 “그림을 볼 때 몸이 편해지는 순간”에 작업을 완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sup>1</sup> 최선의 결과가 아닌 실시간의 과정에 집중하는 백현진에 있어 작업의 리듬은 체계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 도리어 작가의 평소 습관이나 루틴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화면에 머뭇거리는 몸짓이나 한 박이 어긋난 박자, 말장난 같은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낸다.

1. 안소연, 백현진, 「대화: [노동요: 휴과 매트리스와 물결] 인터뷰」, 『노동요: 휴과 매트리스와 물결』(서울: PKM 갤러리, 2019), 149~150.

전시에서 ‘패턴이 아닌 패턴 같은 패턴’에 내재된 임의의 패턴은 평면에서 튀어나와 입체로, 나아가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되는 모양을 보인다. 예컨대 전시장 한가운데 놓인 설치 작업 <새출발 실내우물터>(2024)에서 가짜 우물의 돌무더기 표면과, 펼쳐져서 또는 구겨져서 전시장 세 군데에 설치된 <사랑의 그물>(2024)의 뚫린 그물망은 <당신의 배경>의 회색 마름모꼴과 시각적으로 상응한다. <당신의 배경>의 건너편 벽에 걸린 회화 작업 <벽을 위한 그림>(2022—2024)에서도 마름모 패턴이 감지되는데, 여기에서 더 커지거나 작아진 패턴은 가는 샤프 심으로, 먹의 잿빛으로, 힘을 주었다 뺐다 한 연두색 유화 붓질로 끝길 듯 말듯 그려져 있다<sup>2</sup>. 이는 다시 우물투둑한 우물의 걸면과, 네모와 세모로 보였다 종국에는 마름모꼴로 보이는 <사랑의 그물>의 그물 형태와 연결된다<sup>3</sup>.



도판 2. 백현진, <벽을 위한 그림>, 2022—2024, Ink, oil, graphite, enamel spray paint, kimchi gukmul, taco sauce, collage on paper, 228×152.5cm each의 부분,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사진 촬영: 스튜디오 오실로스코프  
도판 3. 《담담함안담담함 라운지》 전시 전경,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사진 촬영: 스튜디오 오실로스코프

이처럼 동일한 마디가 미묘한 차이로 변형되어 병렬하고, 끝내 변주를 이루는 《담담함안담담함 라운지》에서 다시 주목할 현상은 반복이다. 같은 것의 반복이 아니라 변화를 통한 반복은 역동적인 리듬감을 이끌어 내는데, 백현진의 전시에서 차이의 마디들은 전시실 내부에서 좌우대칭을 이루거나 공간을 가로지르고, 나아가 전시실 외부까지 이어짐으로써 공간을 일종의 역동적인 입체로 조성한다.<sup>2</sup>

동일한 패턴이 서로 다른 매체에 단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테면

2. 마름모꼴 패턴은 전시실 바깥에 설치된 <너의 등 002>(2019)의 가로로 긴 화면에도 실선과 점선으로 느슨하게 그려져 있다. 전시실 내부의 작품들에 앞서 제작된 이 작업은 ‘패턴이 아닌 패턴 같은 패턴’의 프로토타입 또는 프롤로그처럼 전시실 입구 옆 외벽에 놓였다.

전시실 앞 편에 설치된 <운수 좋은 날>(2024)은 입구 쪽에 걸린 <별의별 경험>(2024)의 변형 버전으로 그와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업을 이루는 플라스틱 테이프의 반짝이는 연두색 사각 띠는 회화 작업 <빛나는 순간>(2023)의 오른쪽 모서리에서도, <벽을 위한 그림>의 두 번째 쪽 하단 가운데에도, <당신의 배경>과 <자살방지용 그림>(2021)의 화면 곳곳에서도 발견되는 마크이다<sup>4, 5</sup>. 심지어 이는 <새출발 실내우물터>의 죽은 식물들 속 몇 안되는 파릇한 이파리와도 매칭된다. 음악에서 앞으로 되돌아가 다시 연주되는 세뇨(segno)와 코다(coda)<sup>3</sup> 사이의 구간, 그리고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연주할 때 변형을 일으키는 도돌이표와 볼타(volta)<sup>4</sup>의 페어처럼, 같지만 똑같지 않게 반복되는 특정 구간들은 보는 이에게 익숙함을 주고, 동시에 대상에 더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매개물로서 역할한다.



도판 4. 백현진, <별의별 경험>, 2024, Ink on napkin, 14×11.5cm, 사진 촬영: 장예란

도판 5.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백현진, <운수 좋은 날>, 2024, Plastic tape, 6.3×5cm, <빛나는 순간>, 2023, Ink, oil stick, cloth tape on paper, 72×76cm의 부분, <자살방지용 그림>, 2021, Oil on linen, 50×50cm each의 부분, <벽을 위한 그림>, 2022—2024, Ink, oil, graphite, enamel spray paint, kimchi gukmul, taco sauce, collage on paper, 228×152.5cm each의 부분,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사진 촬영: 스튜디오 오실로스코프

3. 악보에 '달 세뇨 알 코다(Dal Segno al Coda)'라는 기호가 쓰여 있으면, '세뇨(segno)'가 표시된 구간으로 돌아가 그 지점부터 연주를 다시 시작한다. 이후, '코다(coda)'를 적용해 연주를 이어간다. 코다는 선행 코다 기호가 표시된 마디부터 후행 코다 기호가 쓰인 마디까지를 생략하고 연주하라는 뜻이다.
4. n번째 연주할 때만 n이 지정된 마디를 연주하라는 악상 기호로, '프리마 볼타(prima volta)', '세콘다 볼타(seconda volta)' 등으로 쓴다. 반복되는 구간에서 앞부분은 동일하고 뒷부분은 다르게 연주할 때 사용한다.

앞서 말한대로 백현진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리듬은 그의 생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가깝게는 혈렁한 그의 평상시 움직임에서부터, 음악가와 퍼포머, 연기자로서의 활동, 멀게는 어린 시절의 경험까지 말이다. 작가의 몸에 내재된 불특정한 리듬과 운율이 작품과 공간의 이미지로 전이되고, 종국에는 관객으로 하여금 영성한 공감의 질서를 유발한다.

### 텍스트의 행간

〈사랑의 그물〉이 구겨져 놓인 전시실 모서리 벽의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 있다<sup>6</sup>.

있을 수 없는 일은 없는 일(What Cannot Be Cannot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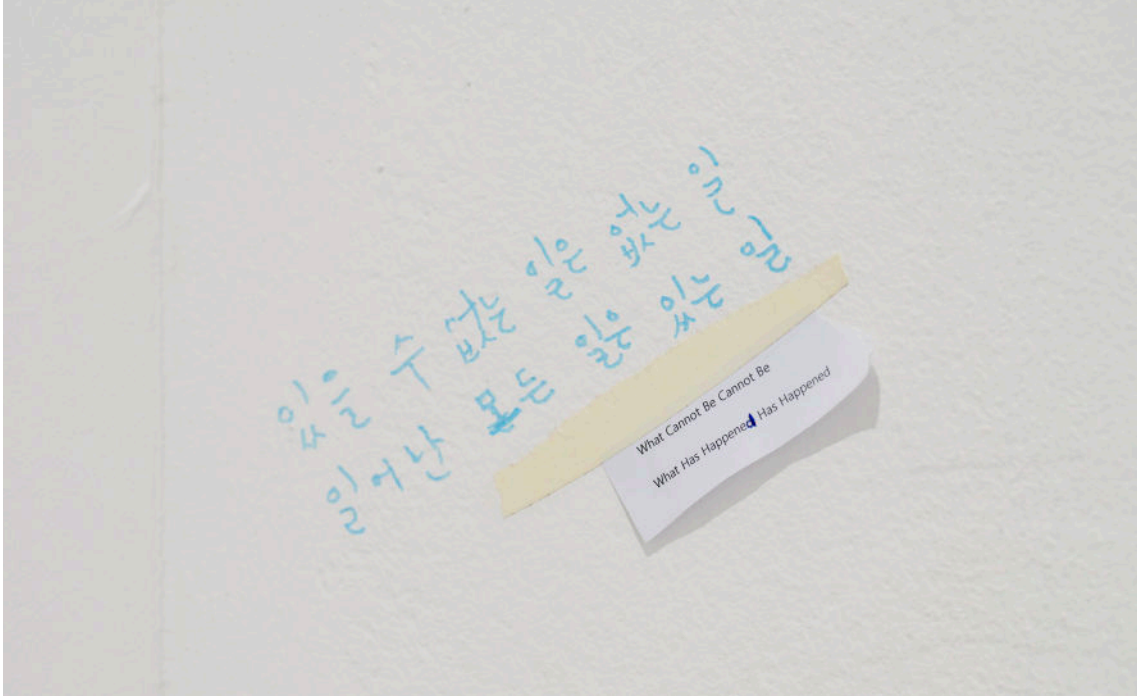
일어난 모든 일은 있는 일(What Has Happened Has Happened)

이 간단한 구절의 한 행은 3·4·3 음보로 구성되어 있다. 두 행에 걸쳐 반복되는 일정한 음절 수는 일련의 율격을 형성하고, 유사한 통사 구조와 문장의 길이는 은근한 운율을 자아낸다. 두 번씩 반복되는 ‘있’, ‘은’, ‘없’과 다섯 번 등장하는 ‘일’의 소리마디는 총 20개의 음절에 호흡과 강약을 주고, 13번에 걸쳐 울리는 ‘오’의 음운은 텍스트 전반에 부드러운 어조를 남긴다.

백현진이 〈슬로건〉(2024)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업은 텍스트 그 자체로 받아들일 때 표면에 드러난 시적인 외형률로 인해 위 문단처럼 단순 분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시 공간에 위치할 때 이 텍스트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게 읽히게 된다. 반복되는 ‘오, ㄴ, ㄹ’의 부드러운 울림은 전시장에 작게 깔린 악기 위주의 소리에 접촉하고, 조명의 낮은 조도와 차분히 맞닿는다. 납작한 2차원 벽면에 붙은 텍스트의 운율이 소리와 빛이 흐르는 4차원 시공간으로 열기설기 얽혀 나와 부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슬로건〉의 내용적인 면에도 적용된다. ‘~라운지’라는 전시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백현진은 전시를 종료된 결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나고 벌어지는 과정의 한가운데 위치시키고자 했다. 〈슬로건〉의 글귀처럼, 그 전시 공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존재하는(있는) 것들이고, 일어나지 않은 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부재하는(없는) 것들이다. 과거에 집착하지도, 미래를 예견하지도 않은 채 그 행간에 있는 현재의 상태를 영민하게 활용하는 백현진의 행위와 생각은 글자와 심상으로 변형되어 공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구성한다.





도판 6. 백현진, <슬로건>, 2024, Sign pen, ball pen, printed paper, masking tape, dimesions variable,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사진 촬영: 스튜디오 오실로스코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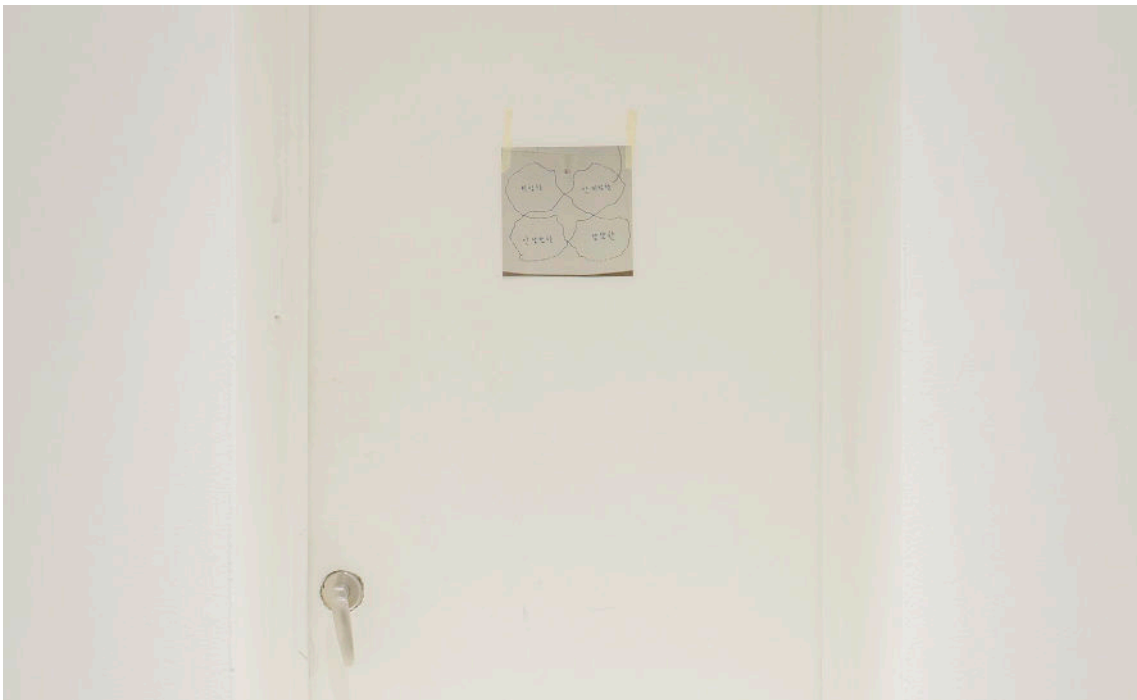
한편, 텍스트에서 비어 있는 구간을 읽는다는 것은 읽기를 넘어서는 복잡한 행위이다. <슬로건>의 첫 번째 행 '있을 수 없는 일'과 두 번째 행 '일어난 모든 일'의 행간을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상상하듯이 말이다. 백현진은 이러한 의미의 행간 또는 이미지 사이의 공간을 말의 언어와 시각 언어를 오가며 전시실에 유연하게 풀어 놓았다. 먼저 그의 작품명 대부분에는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행복과 시름', '인공폭포와 그림자', '서울식 접시 만두' 같은 식이다. 이를 읽는 이는 반대말 사이 또는 엉뚱하게 붙어 있는 단어들의 자간에서 머뭇거리고, 그 의미를 미술 작업의 외양과 연관시켜 가늠해 보게 된다.

다음으로, 전시는 유사한 작업들을 한 벽에 나란히 배치하지 않고 거리를 띄어 놓았다. 예를 들어 흰 냅킨의 중간 지점에 까만 잉크가 네모나게 번져 있는 <별의별 경험>은 6.3×5cm의 사각 테이프로 만들어진 <운수 좋은 날>과 시각적으로 연결되지만, 거리를 두고 정반대의 벽에 걸려 있다. 제작연도와 재료, 캔버스의 크기가 엇비슷한 <행복과 시름>(2023)과 <빛나는 순간>은 가벽 박스를 사이에 두고 등을 맞대어 설치돼 있다. 두 쌍의 대칭이 만드는 사이의 공간은 시에서의 행간과 유사하게 작용한다. <별의별 경험>과 <운수 좋은 날>은 보는 이에 따라 비슷한 말로도,

반대말로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행복과 시름’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빛나는 순간’을 지나 오는 ‘행복과 시름’을 떠올릴 수도 있다. 백현진이 이리저리 펼쳐 놓은 텍스트의 행간과 이미지 사이에서 관객은 퍼즐 맞추기처럼 유연한 조립을 시도해 보게 된다.

반면 <다큐멘터리>(2024)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완전히 붙은 경우다<sup>7</sup>. 백현진은 중간이 벌어진 네잎클로버 형태의 그림 안에 ‘비참한’, ‘안 비참한’, ‘담담한’, ‘안 담담한’이라는 4개의 꾸밈말을 쓰고, 이를 인쇄하여 전시실 내 가장 외진 곳의 창고 문에 테이프로 영성하게 붙였다. 이 작업의 다이어그램에서 의미의 한 단위는 이미지의 한 단락이 된 모습이다. 선으로 연결되거나 면으로 떨어져 있는 말의 단위와 그림의 단락 사이에서 의미는 이리저리 휘저어진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담담한’, ‘안 담담한’이라는 어구는 전시 제목의 일부이기도 한데, 여기서 7개의 음절은 ‘ㅁ, ㄴ’의 자음 받침이 있는 닫힌음절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열린음절에 비해 닫힌음절은 빨리 말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빠른 템포를 가진 곡의 가사로 잘 쓰이지 않는다. 어쩌면 백현진은 나긋한 이미지의 공간적인 리듬과 느긋한 소리의 시간적인 운율에 몸을 맡기며 그에 대한 힌트를 알아차리기 쉬운 말의 언어, 즉 텍스트 언저리에 심어 놓은 것일지도 모른다.



도판 7. 백현진, <다큐멘터리>, 2024, Inkjet print photo, masking tape, dimesions variable,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사진 촬영: 스튜디오 오실로스코프

## 당신의 배경

《담담함안담담함 라운지》의 영어 제목은 “Composeduncomposed Lounge”로, ‘담담하다’를 번역할 때 백현진은 ‘calm’이나 ‘serene’ 대신 ‘compose’라는 동음어를 택했다. 여기에 ‘-ed’가 붙으면 ‘침착한, 태연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면서 ‘~으로 구성되다, 작곡되다’라는 의미의 피동사가 된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풀이되는 이 영단어는 전시의 배경을 파악하는 또다른 단서를 준다.

백현진은 작곡가(composer)이자 연주자로서 전시장에 연속해서 흐르는 11개의 음원을 만들었다. 전시 개막 직전인 2024년 8월 29일 정오에 발매한 정규 앨범 <심플렉스: 담담함안담담함 라운지>에 수록되기도 한 이 음원들은 모두 가사가 없고 타악기, 피아노, 전자음 등의 간소한 선율과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템포로 구성되어 있다. 음원 중 유일하게 <B1 24>에 백현진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마저도 음을 맞추면서 목을 풀거나 데모 녹음을 위해 흥얼대듯 연주에 녹아 든 모습이다. 여기에는 클라이맥스나 주연이 없고 배경음 같은 것만이 존재할 뿐이다.

2019년, 백현진은 상하좌우가 없고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로 설치될 수 있는 모듈형 회화를 처음 선보였다.<sup>5</sup>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심플렉스(Csimplex)”라는 이름으로 미술 활동과 관련한 음반 시리즈를 발표하기 시작했다.<sup>6</sup> 지금까지 발매된 4장의 <심플렉스> 음반 커버는 백현진이 당시 그리고 있었거나 사로잡혀 있던 회화 이미지가 장식했고, 앨범 내 음원은 발매일 전후에 열린 그의 개인전에서 오디오 또는 QR 태그로 재생되었다. 이 무렵부터 그의 음악 활동과 미술 활동은 별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동하기 시작했다.

A1, A2, A3, A4, A5, A6, B1, B2, B3, B4, B5 등 앨범마다 거의 동일하게 붙은 곡명은 이러한 복합성에 간단한 규칙을 부여한다. 이 제목은 음반의 A, B면, 또는 A, B형의 종이 규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종이 규격은 A4가 210×297mm, A3가 297×420mm인 식으로 알파벳 뒤의 숫자가 0에 수렴할수록 종이의 면적이 곱절로 커진다. 음원의 제목이 지시하는 이러한 배수의 패턴은 각 음원의 속성, 즉 템포,

5. 《노동요: 흉과 매트리스와 물결》(PKM 갤러리, 2019.2.15.—4.7.)에서 백현진은 총 65점의 모듈 회화 연작을 전시했다. 모듈은 93×93cm 크기의 그림과, 그 두 배 크기인 93×186cm 두 종류로 구성됐다. 이 회화 연작은 설치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상하좌우를 바꿔 걸 수 있고, 같은 크기의 다른 작품과 결합해 마치 증식하듯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었다. 모듈 연작은 몽그리진 패턴을 규칙적으로 그린 <패턴 같은 패턴>(2018—2019) 16점을 포함했다.

6. “백현진은 자신이 창조한 단어 ‘Csimplex(simple+complex)’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한다.” 안드레스 솔라노, 『백현진에 관한 17가지 생각』, 『있을 수 없는 일은 없는 일』, 백현진 지음(서울: 헤적프레스, 2024), 283.



길이, 화성 등에서는 감지되지 않지만, 음악 앨범과 합을 이루는 미술 전시에서 쉬이 발견된다. 《담담함안담담함 라운지》에서는 〈벽을 위한 그림〉, 〈자살방지용 그림〉, 〈당신의 배경〉이 전시의 큰 축을 이루는데 이는 각 6점, 70점, 18+18점의 장지 혹은 캔버스 유닛으로 구성된(composed) 대형 회화 작업이다. 이 중 〈자살방지용 그림〉은 50×50cm의 정방형 유닛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 백현진은 유닛을 세로로 5점씩, 가로로 14점씩 나열하여 전시실의 한 벽과 그 옆 벽의 일부까지 채웠다<sup>도8.7</sup> 하나의 유닛을 시작으로 위와 아래, 옆으로 붙어 거둬제곱으로 증식하는 이 모듈형 그림은 음원의 제목과 유사한 배수의 리듬을 따르고 있다.



도판 8. 《담담함안담담함 라운지》 전시 전경,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사진 촬영: 스튜디오 오실로스코프

그의 모듈 회화들은 전시의 주요 출품작인 한편 무대 배경처럼 기능하기도 했다. 백현진은 전시 기간 동안 전시실에서 비정기적으로 〈눈과 거울〉(2024) 퍼포먼스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정기적으로 〈공짜〉(2024) 퍼포먼스를 매번 다른 게스트들과 진행했다. 예컨대 2024년 10월 11일자 〈공짜〉에서는 코미디 크루 빠더니스의 문상훈이 참여해 오후 8시부터 약 30분간 독백 연기를 선보였다. 관객들은

7. 백현진은 작업을 처음 선보인 《퍼블릭 은신》(로알엑스, 2021.10.26.—12.12.)에서 〈자살방지용 그림〉의 유닛 252점을 결합해 7m 높이의 거대한 오두막처럼 만들었고, 이를 〈오두막〉(2021)이라고 이름 붙였다.

간이 의자가 포함된 <서울식 접시 만두>(2024)와 담요 ‘부적’에 흠어져 앉거나 서 있었고, 문상훈은 책상에 맥주 한 캔과 종이컵을 올려 둔 채 맞은편 걸상에 앉아 입을 뻐끔거리며 속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소거된 음을 간헐적으로 비집고 나온 대사 몇 마디는 다음과 같았다. “후회”, “왜”, “마음”, “진짜”, “가짜”, “자살”, “엄마”,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갈게, 미안해”. 아들이 엄마에게 토로하는 듯한 이 상황극의 끝에 백현진은 노래했고, 그의 선율과 무대 측면에 걸린 <자살방지용 그림>은 상심한 아들을 위로하는 완충막이 된 것처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관객의 움직임 또한 즉흥성에 기반했다는 것이다. 사전 예약제로 입장한 40여 명의 관객들은 웰컴티를 받아 든 채 전시실에 들어섰고, 객석도 무대도 없는 곳을 천연하게 누볐다. 어떤 이는 자세히 찾아야만 보이는 <벽을 위한 그림>의 샤프심 드로잉을 들여다 보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였으며, 다른 이는 의자에 쭈그려 앉아 공짜로 받은 빵과 커피를 즐겼고, 또 다른 이는 담요 위에 누워 답소를 나눴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관객과 섞여 있던 백현진과 문상훈이 책걸상을 끌고 나오면서 퍼포먼스는 시작되었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두 퍼포머가 퇴장하면서 관객들도 뿔뿔이 흠어졌다. 아무것도 계획되지 않은(uncomposed) 이곳에서 무대와 객석, 작품과 관객, 가짜와 진짜는 합산과 해산을 거듭하며 구분 없이 전도되었고, 그곳에서는 최소한의 운율이 자연스럽게 흘렀다<sup>9</sup>.



도판 9. 《담담함안담담함 라운지》 전시 전경, 사진 제공: 일민미술관, 사진 촬영: 스튜디오 오실로스코프

백현진이라는 사람은 큰 키에 휘적휘적 걸어 다니고, 평소에 끝음을 끝다 한 템포 쉬었다 하는 말버릇이 있다. 그런 그가 미술가이자 문학가이자 연기자이자 음악가 등등으로 태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낼 때 혹자는 그가 아무렇게나 대충 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기만의 패턴이 아닌 패턴 같은 패턴으로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그 자신의 모양 그대로 말이다. 이번 전시가 그렇듯 백현진은 시각예술과 텍스트, 행위예술이 벌어지고 만나는 하나의 단순하고 복잡한 지점이며, 그리고....